

북구 대형마트 허가났다고 개점될까

市 조례 제정 방침 ... 등록 거부할 수도 지역 상인들 반발·소송 등 지연 가능성

광주 북구 대형마트에 대한 건축이 허가돼 S법인은 9개월 만에 대형마트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새로 마련된 조례에 따른 지역 상인들의 반발, 소송 등을 피할 수 없어 입점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광주 북구청은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을 추진 중인 S법인에 건축을 허가했다.

북구청이 그동안의 불허 방침을 바꾼 것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날까지 건축을 허가하지 않으면 이달 1일부터 하루 500만원씩 강제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행정기관이다 보니 법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며 “많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역 중소기업들의 입장에 서서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구청은 최근 광주시가

제정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의 운영방침을 규정된 조례를 자체적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북구 조례안이 제정되면 S법인은 건물을 완공하더라도 대규모 점포(3000㎡) 개설 등록 신청시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심의 통과를 위해서는 영향평가서, 전통시장상인회와 광주수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개시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로부터 동의서 받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심의위원회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다.

또 북구청이 건축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공사 중 소음·분진 저감 대책 등을 요구한 상태에서 S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북구청은 공사금지 처분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대형마트 입점 예정지와 인근에 있는 고려중·고 학교법인과 학습권 침



대책없는 북구 대형마트 건축허가 결사반대! 구경제 다죽이는 대형마트 입점계획 완전철회!

지난달 30일 오전 대기업대형마트·SSM입점저지북구대책위와 각 정당 의원들이 북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허가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입점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의 허가결정에 강력히 항의하고 입점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북구 유통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의 허가결정에 강력히 항의하고 입점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북구 유통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광공업 생산 광주 4.2% ↑ 전남 3.2% ↓ 10월 중 광주, 자동차·기계장비 급증 전자부품·컴퓨터 감소

10월 중 광공업 생산이 지난해와 비교해 광주지역은 늘고 전남지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10월 광주·전남 광공업 생산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10월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8% 증가했다. 전달보다는 4.2%

감소했다.

주요 업종별로는 자동차(30.6%), 기계장비(60.3%), 담배(30.6%) 등이 증가했고,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11.1%)은 감소했다.

생산자 제품 출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7% 증가했고 전달보다는 4.3% 감소했다. 재고는 지난해 같

은 달보다 0.1% 증가, 전달보다는 5.9% 감소했다.

전남지역의 10월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감소했고 전달보다는 3.3% 증가했다.

업종별로 금속가공(-51.1%), 식료품(-25.5%), 기계장비(-53.8%) 등이 대부분 감소한 가운데 1차금속(6.6%)이 조금 늘었다.

생산자 제품 출하는 지난해보다 0.5% 감소했고 재고는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업 12월 경기전망 전달과 비슷 한은 533곳 조사 ... BSI 94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은 12월 기업 경기 전망을 전달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광주·전남지역 매출액 20억원 이상 533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0년 11월 기업경기 조사' 결과, 12월 제조업 업황전망BSI(기업경기

실사지수)는 94로 전달과 같았다.

12월 제조업 매출전망BSI(107→105)와 생산전망BSI(106→104)는 각각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신규수주전망BSI(97→101)와 가동률전망BSI(101→102)는 각각 4포인트 상승했다. 설비투자전망BSI(103→106)와 생산설비수준전망BSI(99→102)은 전달보다 각각 3포인트 상승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기록행진' 월별 생산량 두달연속 최고

쏘울·스포티지R 수출 호조 11월 4만8000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월별 생산량이 2개월 연속 신기록을 작성했다.

지난달 30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쏘울·스포티지R의 수출 호조로 11월 생산이 4만8000여대를 기록,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신기록을 경신했다.

지난달 기아차 광주공장은 2006년 11월 이후 48개월만에 월별 생산량(4만2250대) 신기록을 세운데 이어 한 달 만에 또 다시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는 본격 겨울에 오를 50만대 재편사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 노사 합의에 따라 급물살을 탄 기아차 광주공장의 50만대 재편 사업은 3월 스포티지R의 성공적인 출시에 이어 지난 6월 광주 2공장의 스포티지R과 쏘울 혼류 생산 및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35대에서 42대 체제로 전환했다. 또 지난 9월에는 1공장의 쏘울 생산을 시간당 37대에서 42대로 증산하기로 노사가 최종 합의함에 따라 50만대 생산체제가 사실상 완성됐다.

이와 함께 쏘울이 북미를 비롯한 국외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스포티지R도 지난 3월 출시 이후 내수와 수출에서 좋은 반응을 얻는 등 광주공장 주력 차종의 판매 호조가 계속 이어진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현재 추세로 볼 때 당분간 광주공장의 월별 생산 신기록 행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올해 역대 최고 생산량인 연간 4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11월 말 현재까지 올해 광주공장의 생산량은 36만4000여대로 현재까지 연간 생산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 2007년의 34만5689대를 약 1만8000여대 이상 초과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50만대 재편사업의 효과가 본격화되는 2011년부터 50만대 생산규모를 갖춘 국제적 수출전진기지(UPH)를 35대에서 42대 체제로 전환했다. 또 지난 9월에는 1공장의 쏘울 생산을 시간당 37대에서 42대로 증산하기로 노사가 최종 합의함에 따라 50만대 생산체제가 사실상 완성됐다.”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매우 잘 들립니다. *안보입니다.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총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목포점 (061)262-9200

익산점 (063)851-2422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마음 속에서만 맴돌던 사랑한다는 말, 3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삶의 즐거움은 누군가의 억지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직접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몸과 마음에 건강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kr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비타민 A, C, E의 보급

- 육체피로, 임신 수유기 병중·병후의 체력 저하시, 노년기
- 눈의 건조감의 완화, 야맹증
- 햇빛·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기미, 주근깨)의 완화, 잇몸출혈·비출혈 예방
- 알츠하이머병 및 경년기시 다음 증상의 완화: 어깨·목결림, 수직저림·수족냉증

이연의 보급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 캡슐

광고심의필 : 1056-0600